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의 소리 하나로...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닷새간 '소리의 숨결' 울려 퍼진다

16일까지... 66개 프로그램
126회의 공연으로 구성돼전통음악 비롯해 월드뮤직
AI 창작 프로젝트 등 마련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2일 개막해 16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의 다양한 소리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모으는다.

올해 축제는 8개 분야 66개 프로그램, 126회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판소리와 산조 등 전통 음악을 비롯해 월드뮤직, 창극, 대중음악, 거리공연, 어린이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까지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마련됐다.

축제의 중심에는 우리 소리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이 자리한다. 전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명창들이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등 판소리 다섯바탕의 눈대목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줄타기와 사자놀이, 판굿 등을 결합해 듣는 판소리를 넘어 몸짓과 연희가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차세대 소리꾼들의 무대인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도 관심을 모은다.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젊은 소리꾼들이 전통 판소리를 자신만의 개성과 해석으로 풀어내며 한국 전통 음악의 미래를 보여줄 예정이다.

전통 기악의 깊이를 만나는 '산조의 밤'에서는 박대성 명인의 아쟁산조와 박범훈 명인의 피리산조가 한 무대에 오른다. 또 '오늘의 시나위'에서는 젊은 연주자들이 경기제·남도제·메나리제 등 지역별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즉흥성과 창작성을 더해 전통 시나위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인다.

아외에서는 우리 민속예술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이



소리축제 개막 기자회견에 참석한 젊은 소리꾼들

은 소리꾼 5명이 앉아있다.

1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제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기자회견에서 축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는 젊은 소리꾼 5명이 앉아있다.

(사진=뉴스1 제공)

이어진다. 강릉단오제보존회의 '강릉단오굿'을 비롯해 김소리의 '여성농악안녕, 평안 굿', 고창농악보존회의 '반두레 풍장 굿' 등이 축제 기간 관객들과 만난다. 전통 의례와 농악, 놀이가 어우러지면서 축제의 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음악을 만나는 '월드뮤직'도 축제의 중요한 축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음악적 자산을 결합한 '쇼팽 & 아리랑', 한국의 거문고와 피리, 폴란드 민속음악이 만나는 'String & Wind'를 비롯해 캐나다 포크 음악과 한국 소리가 만나는 무대가 마련됐다.

인도 전통 음악을 선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요츠나 스리칸츠와 말라위의 월드뮤직 밴드 마달리초 밴드, 한국 최초의 아랍 음악 밴드로 알려진 마지카 밴드 등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도 전주를 찾는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기획 공연도 눈길을 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남원시립극단이 제작한 창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판소리의 음악적 표현을 통해 가족의 삶과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풀어낸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소리 시네마'에서는 판소리를 소재로 한 영화 '서편제', '이화중선', '그룻된 소녀'가

상영되며, 작품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전북CBS 공동기획 무대에서는 국민 가수 심수봉과 어반자카파가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심수봉은 중고교 판소리 명인 고(故) 심화영 선생의 조카로, 전통 음악의 정서와 대중음악을 잇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적 정서를 현대적인 블루그래스로 풀어낸 '컨트리공방', '두번째달 X 장명서', '상자루', '악단관칠' 등도 무대에 오른다.

축제의 무대는 공연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리 프린지'는 전주 도심의 광장과 거리 등 일상 공간을 찾아가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어린이 소리축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도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판소리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축제기간 관객들의 선택을 받는다.

전통 음악의 국내외 유통과 확장을 위한 '소리 NEXT'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된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과 작품 유통,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전통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백제예술대학교 전자음악과가 참여하는 '비트로 지역과 도시를 잇다'가 마련돼 전통시장과 전자음악의 색다른 만남도 선보인다.

최철 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그동안 소리축제가 다져온 전통 음악의 가치를 지키고 축제에 녹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며 "예술가와 관객, 지역 사회,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음악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김정수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2001년 시작된 소리축제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민의 빛으로, 국내 전통 음악가들의 만남의 장으로, 나아가 세계 아티스트들의 정서적 허브로 자리잡아 왔다. 소리축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수많은 소리의 숨결들을 모아 하나의 판으로 올해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닷새간의 신명나는 판을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제도로 격상

가축분뇨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지난달 시행
전북도 실증 데이터, 기후부 법령 개정애 반영
원료 혼합 허용 등으로 에너지 대전환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 애로를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풀어내며, 가축분뇨 연료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온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서 확인된 현장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제도로 전북의 지역 실증 모델은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돼, 가축분뇨 처리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규제를 걷어내고 축분 에너지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막혀 있던 원료 혼합이 허용됐다. 가축분뇨에 콩대·옥수수대·알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같은 보조원료를 섞어(가축분뇨 80% 이상·보조원료 40% 미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보조원료 범위에는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외에도 초분류, 톱밥, 폐목재류가 포함됐다. 다만, 폐목재류는 집착제나 페인트 등이 사용된 것은 제외하고, 탱 부유물 수거나 가로수 전정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로 한정했다.

또한 분진과 인산을 막을 적정 조치를 전제로, 펠릿 성형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드는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종전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해 생산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허가·신고 절차도 정비됐다. 배출시설 설치와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때 고체연료 생산계획, 원료 성분과 보조원료 혼합비, 고체연료 보관 방안, 사용시설 확보·공급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했고, 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료 성분 기준 준수와 생산된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도가 현장에서 축적한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졌다. 도는 2024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4년간 산업융합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실증에서 한 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의 210톤 규모 혼소(우분 연료+석탄)에 성공하며,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도 개선 건의 → 현장 실증 → 데이터 확보 →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과정은 정부 규제혁신의 사례로 평가된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규제혁신 대통령 표창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전북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해 해법을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현안과 난제를 풀고 그 성과를 국가 제도로 안착시키는 규제혁신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국가가 지원하는 첫 보험료 한번, 평생 연금이 카칩니다

2027.1.1. 청년의 출발 국민연금 함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NPS 국민연금